



전북자치도의회,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2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는 마음채심리상담센터장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선 강사가 초청됐다.

홍 강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배경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도 강의에서 다루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문승우 의장은 교육에 앞서 "익숙함 속에서 방심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군구 부문 대상 수상

남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군구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결과 44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지난 8월 대면 평가를 통해 질의응답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읍·면·동장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민관 연합 모니터링단 '행복살롱단' 운영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폐지 모은 돈 나눔 실천

남원시 죽향동은 지난 11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평소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인 지폐와 동전을 작은 통에 담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 어르신은 매년 연말에 기부하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신 것으로, 자기 자신도 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지속적으로 모은 폐지에서 나온 수익을 기부한 것이며, 액수는 비록 적지만 그 마음은 매우 크고 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르신은 "적은 금액이지만 남을 돕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며, 자신이 가진 것 중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백제약국,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남원백제약국(대표 유은상)이 희망2025나눔 캠페인을 맞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제약국은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씩 남원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유은상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사회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소외된 이웃 위한 5000만원 상당 한우고기 전달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운섭)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진행한 대대적인 모금활동의 성과로 5천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운섭 전북도지회장, 한양수·조영호 부회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2017년부터 매년 한우고기 기부와 성금 등으로 약 8억 원의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정운섭 전북도지회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해 나가고 사람과 배움의 감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우협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우협회는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떠한 폭설과 혹한이 찾아와도, 한우협회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소외된 이웃과 가정에 온전히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10월에는 주택건축과 장기준 팀장, 11월에는 과채류연구사 이창규 연구사, 12월에는 탄소중립정책과 이주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월의 이팔청춘 주인공으로 선정된 주택건축과 장기준 팀장은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며 공직자의 모범을 보였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광역 단위로 유일하게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하며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솔선수범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모습도 돋보였다.

11월 전문가 주인공으로 선정된 과채류연구사 이창규 연구사는 전북 파프리카의 상품성 육성과 수출시장 확대에 힘썼다.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며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12월의 도전 골광왕 주인공으로 탄소중립정책과 이주란 주무관이 선정됐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일회용품 저감 캠페인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섰다. 커피전문점과 지역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확산시키고,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혁신주인공들의 노력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오늘 시상식이 혁신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체육회, 2024년 체육상 시상식 개최

진안군체육회는 지난 11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2024년 진안군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체육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선수 부문에서 육상 박예영, 천다예(이상 진안초), 레슬링 주지훈, 김경민(이상 진안중), 승마 손재연(진안초), 이윤희(송송초), 역도 김운상, 정민성(이상 진안중) 선수 8명이 수상했다.

또한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장종섭(민속경기협회), 송경환(출다리기협회), 우수단체 부문 진안읍·안천면·성수면체육회와 그라운드골프협회, 테니스협회가 수상했으며, 입상 부문에서는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고리걸기팀과 여성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 및 입상한 출다리기팀, 고리걸기팀, 부호탐이, 공로상에는 김영배(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김만성(진안읍체육회장), 김응일(전. 체육지원팀장)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 유공자에 대한 군수 표창에는 정환오(마령면체육회장), 유기봉(진안군과다골프협회장), 박무성(진안역도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무주군지부·구천동농협,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관)은 무주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행복복합센터의 상담을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노후화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생활품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가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무주관내 농협은 해마다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북전주농협, 조합원 농업관련 선진지 견학 실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일~6일, 6일~10일 두 차례 3차 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농업관련 조합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90여명의 조합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수요에 맞춰 베트남 현지 과일 시장과 열대과일 농장을 방문하며 영농 기술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다문화 사회는 이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에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우광 북전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환경에서 농업 기술을 견학하고 배워 앞으로의 기후변화 및 사회 구성원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 개인도 단체도... 연이은 온정 나눔 동참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손태욱 씨가 지난 12일 무주군에 토마토 판매 수익금을 써달라며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손태욱 씨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족이냐는 율타라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로 넓혀나가고 싶었다. 관내 학생들과 저소득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금의 보탬이 소소한 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조합장 최종길)에서도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2000년 4월 출범하여 2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무주군 개인택시조합은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지역 인재양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총 300백만원씩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공무원 노조, 지역사회 소비 촉진 앞장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은 12일 정성주 김제시장과 소상공인협회(회장 고영선)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카드 상품권 3,600만 원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입한 상품권은 조합원 1,202명에게 3만 원씩 지급, 시 소재 상품권 가맹점 4,37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공무원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작년부터 조합원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남원 도동동, 한파대응 안전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년자)는 지난 11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마무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소 치매안심교육과 한파대응 안전교육과 연계해 △한파대비 외출 자제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안전 수칙 등 겨울철 한파에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남만기타 소리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 통기타 동호회 '남만기타 소리샘' (회장 이현철)이 12일 무주군을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2021년에 창단한 남만기타 소리샘은 무주지역 50대 4명으로 구성, 무주반달불축제 행사, 서면소나나무 공원 등에서 공연을 가지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그간 활동한 공연비를 조금씩 꾸준히 모아 마련했다.

이현철 회장은 "무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배운 기타를 재능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 기쁘며,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